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9만명 찾았다

선박 이용 이동 불편에도 전년 관광객수 상회
유채꽃·정보리 물결 장관…‘느림은 행복’ 만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2019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가운데 9만1천여명의 관광객이 청산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선박안전법에 지방자치단체 주관 도서지역 축제 기간 중 임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삭제돼 여객선 1척 당 200명을 승선 시킬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도 관광객 수를 상회했다.

청산도는 노란 유채꽃과 청보리의 푸른 물결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푸른 바다와 돌담길 등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 절로 발걸음이 느려져 삶의 쉽표가 되는 섬이다. 올해로 11회 짝을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느림은 행복이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슬로길(42.195km) 곳곳에 유채꽃을 심어 노란 꽃물을 들이고 청보리를 곁들여 부드러운 봄바람에 일렁이는 푸름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로 변 공한지를 일제 정비해 리

빙스틴데이지, 팬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식재,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주요 행사로는 지난달 13일 서편제길 특설무대와 봄의 왈츠 세트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개막 행사와 5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청산도 전역에서 진행됐다. 공식 행사인 ‘나비야 청산가자’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천마리의 배추나비를 날려 개막식에 참석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혜씨가 ‘인생과 청산도’를 주제로 청산도 힐링 토크를 진행해 관광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세계슬로시티 연맹이 공식 인

증한 세계슬로걷기길 1호인 청산도 슬로길 11코스를 완보하면 완보자에게 기념 배지를 채워주는 ‘청산완보’가 축제기간 내내 진행돼 인기를 끌었다. 포항에서 온 한 관광객은 “슬로길을 걸으며 유채꽃의 노란 물결과 탁 트인 푸른 바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가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힐링 그 자체였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편제 소리마당, 유채꽃 정원 버스킹, 우리 마을 노래자랑,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 ‘청산 구들장 농악 시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중장제인 ‘초분 만들기’, 전통 혼례식인 ‘삼 처녀 시집가는 날’, 청산도 조개 공예 체험, 짚풀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



‘2019 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9만1천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청산도에 막을 내렸다. /완도군 제공

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앱을 설치하고 걷는 만큼 자동으로 ‘꽃 씨앗’이 기부되는 ‘사계절 꽃피는 청산도’는 아름다운 청산도 만들기예 동참하게 됨으로써 의미도 남다른 만큼 참여도도 높았다. /완도=윤보현기자

완도군, 식수원 개발사업 시동 222억 들여 해저관로 등 정비

완도군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식수원 개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완도군은 9일 “군은 265개의 섬으로 이뤄진 곳으로 도서지역의 만성적인 생활용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지역의 해저관로 시설 등 식수원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금일을 충도 등 20개소에 국비 156억원과 군비 53억원을 포함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 222억원을 들여 도서지역에 해저관로, 해수담수화시설, 급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저관로 연결은 각 읍·면 본섬과 떨어진 낙도를 연결해 원활한 식수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짧게는 금당면 비견도로 0.6km, 길게는 금일을 충도로 2.2km까지 연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보리밭 사이길로 ‘힐링나들이’ 연호보리축제가 최근 해남군 황산면 연호마을 난반이 농원 내 20만평의 청보리밭에서 열렸다. 축제는 풍년안전제를 비롯해 각종 축하공연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낮은 구름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청보리밭을 거닐며 봄기운 가득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상

포상금 1천만원 전액 저소득층 수술비 등 사용

해남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

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율, 사망의심자 검증 등 6개 지표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남군은 모든 항목에서 탁월한 실

적을 인정받아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남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적극 힘쓰고 있다. 더불어 복지대상자의 월별·연간 확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나 부양의무

자의 소득·재산 미신고로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조치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포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사무기기 구입, 저소득층 적추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동을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병용기자

‘진도아리랑 8味 전국요리경연대회’ 성료

40개 요리 진도 관광 음식 상품화 지역내 보급

‘진도아리랑 8味 전국요리경연대회’가 최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의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해 진도아리랑 8미를 보다 발전·육성시키고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각각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 상금 200만원을 거머쥔 일반부 영예의 대상은 진도아리랑 8미 꽃게와 바지락용 이용한 꽃게 버섯전골, 바지락과 표고버섯을 곁들인 파 탕수를 선보인 김금인·조영옥팀이 진도홍주와 울금막걸리에 어울리는 주안상으로 독창적이고 대중적인 맛이 심사위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학생부 대상은 하나의 요리에 육·해·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육·해·공 쌀국수 볶음요리와 육·해·공 겸정 유부초밥을 선보인 순천 청암대의 김제인·유성일팀이 10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바다를 품은 해초전복 볶음을 선보인 일반부 박송진, 허금숙 팀과 꽃게감정과 대파 흑미 떡볶이, 배이건 대파말이 꼬치를 선보인 학생부 황영우, 김찬우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숙성대파김치 잔재미 찜과 대파낙지볶음을 선보인 일반부 서순금·이지혜팀, 진도보쌈삼합, 진도해조류해물파전을 선보인 학생부 송승은·김현중팀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나눴다. 이번 요리경연대회에서 참가한 20개 팀의 40가지의 요리는 지역 시그니처 메뉴로 전문가를 통해 진도 관광 음식 상품화로 만들고 진도 지역 음식점에 보급·확대할 계획이다. /진도=박세원기자

‘고철 모아 태산’ 해남군, 농촌 환경 개선

수익금 불우이웃 지원

해남군 마산면이 들녘에 방치된 고철을 모아 수익도 거두고 농촌 환경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마산면은 지난 3월부터 ‘새봄맞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 관내 35개 전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44여t의 고철을 수집,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은 1천144만5천 원이다. 각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나 마을 공동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특히 이번 고철 모으기를 통해 도로변이나 논밭두렁에 방치된 폐농기구나 철구조물 등으로 농어촌 환경의 골치거리가 됐던 고철을 재활용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원인을 말끔히 제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박충현 안장마을 이장은 “도로변에 녹이 손 경운기와 트랙터 트레일러, 콤팩트 등 폐농기계와 폐농자재가 방치돼 있어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고철 모으기를 통해 말끔히 정리해 환경도 살리고 마을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등 주민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해남=김병용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5월 12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

마음 愛 자비를! 세상 愛 평화를!

▶ 제1부 봉축법요식

♣ 5월12일 일요일 오전10시 길상사 [사회:백승현]

- 명중(5회): 수달마 스님
- 육법공양: 문수지회장님, 나레이선 김경 외16명(베트남 불자 포함)
- 축가: 길상사목련합창단, 송광실버합창단
- 삼귀의례: 사부대중
- 찬탄경문: 김 경
- 헌화: 각 신도회 회장 및 내빈

♣ 장학금 수여식(길상사 108장학회)

♣ 송광지역아동센터 명그랑저금통 전달식

♣ 북한중, 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심금보살 기부

▶ 제 2 부 음악회(길상사 고월당 앞마당, 1시~3시까지)

- 포크가수 양은주
- 화이트밴드
- 지역 아동 센터 공연, 이주 문화 예술단, 부채춤,장구, 뭉골 신통 노래, 스리랑카 장구 공연, 베트남 노래 공연, 길상사 신도 노래자랑
- 북한통일드림예술단 공연(난타퍼포먼스, 통일무지개, 오빠장 아이돌아라)

※ 노래자랑 상품 준비되었습니다.

▶ 연등접수 받습니다 / 가족등, 영가등, 일일등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도교당

길 상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 문의 : 062-955-4407

♣ 봉축법요식

- 봉축법어 --- 도제스님 (길상사 주지)
- 축사 --- 김동철(국회의원), 김상호(광산구청장), 백남용 (길상사 신도회장)
- ※축사는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회향발원문 --- 사미타스님
- 사중서원 --- 사부대중

♣ 관육 ---- 사부대중 전체

♣ 공양시간 : 관육후 11시30분부터

- 공양장소: 길상사 공양간, 길상사 법당, 고월당카페,
- 아시아밖은 2층, 아시아밖은 3층 외국인쉼터

도제스님

▶ 제 3 부 음악회

- ♣ 저녁공양: 저녁 5시
- ♣ 음악회
- 꿈앤꿈(단장: 김도현 기타 리스트,사프렌 : 자매 기타 리스트, 권혁찬 : 세계 민속 악기 연주,이승이 : 트로트 가수)
- ♣ 제등 행렬: 저녁 8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도교당

길 상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 문의 : 062-955-4407

CMYK